

“모든 아이들은 ‘재능이라는 씨앗’ 품고 태어납니다”

‘책씨앗 최고의 책’ 선정된 ‘사춘기 문예반’ 장정희 작가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재능’이라는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며 물을 주다보면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돋고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피우려는 노력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말이예요.”

최근 장정희 작가의 소설 ‘사춘기 문예반’이 ‘2020 책씨앗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책씨앗은 작가, 도서관, 독자, 출판사, 서점이 함께 만드는 독서 문화 플랫폼이다. 이번 선정은 1만4000여 명의 책씨앗 사서, 교사, 독서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추천도서로 선정된 160여 권을 두고 경합을 벌인 끝에 얻은 결과다.

대중영국 국어교사이기도 한 작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처음에는 선정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며 “얼음장 밑으로 ‘진짜의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자는 오랫동안 국어 교사로 문예반 지도를 해왔다. 담임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 “글쓰기 지도를 하다보면 훨씬 아이들과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춘기 문예반’도 고2 여학생이 우연히 친구 따라 들어간 문예반에서 글쓰기를 계기로 연대감을 갖고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광주 대광여고 국어교사로 재직 사서·독서활동가 추천 도서 1위 “글쓰기는 내면 치유하는데 도움 아이들 타인 아픔 공감하는 사람되길”

“아이들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글을 통해 누군가의 공감을 얻게 되는데 힘을 얻습니다. 자신이 겪는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울러 이 아이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글쓰기 재능까지 발견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매에 힘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장 작가는 “이 소설은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주인공도 일정 부분 가공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학교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픈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도 다들 공부만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장 교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도 속이



비어 금방이라도 ‘부러질’ 상황에 처한 아이들도 있다”며 “‘글쓰기’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데 일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든 아니든 “문제적 상황에 놓일수록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마음 이 경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작가는 앞으로 꾸준히 글을 쓸 계획이다. 물론 “교사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전지하면서 말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며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라는 꽃은 빨리 필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꽃이 봄에만 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각자 제만의 씨앗을 밟고 정성껏 가꿔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방향을 알려주고 보듬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몫이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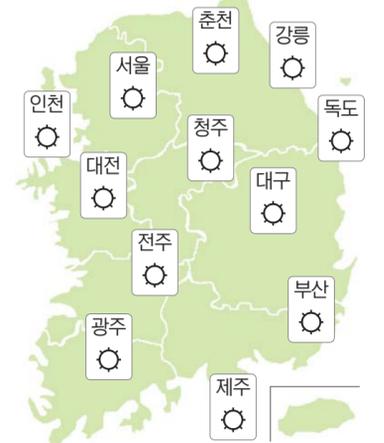
해돋이	05:50	달뜨기	06:06
해지기	19:12	달지기	19:19

근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5/15	보성	맑음	3/14
목포	맑음	6/13	순천	맑음	5/16
여수	맑음	6/16	영광	맑음	4/13
나주	맑음	3/15	진도	맑음	6/14
완도	맑음	7/14	전주	맑음	4/15
구례	맑음	4/15	군산	맑음	5/13
강진	맑음	4/15	남원	맑음	3/14
해남	맑음	5/14	흑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4/15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0.5~1.5	
	면바다(북)	1.5~3.0	1.0~2.0	
	면바다(남)	1.5~3.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1.0~2.0	0.5~1.0	
	면바다(서)	2.0~4.0	1.5~2.5	
	면바다(동)	1.5~3.0	1.0~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42 19:52	02:29 14:36
여수	03:09 15:20	09:22 21:41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4/18	9/21	6/19
27(월)	28(화)	29(수)
8/18	7/18	8/21



12사단 전차대대 헌혈유공자들이 헌혈유공장 포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남뉴스

육군 장병 6만7196명 헌혈...2660만ml 혈액 모아

국가 혈액 소요 12.6일치 해당

육군이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국가 전체 혈액 소요 12.6일치인 2660만ml의 혈액을 모았다.

육군은 22일 “올해 1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석 달 간 대한적십자사 단체 헌혈자의 42%에 해당하는 6만7196명의 육군 장병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육군 군수사령부 정무경(40) 소령은 올해 2월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 대상’을 받았다.

마스크, 손 소독제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정 소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종합정비창 양인수(49) 주무관도 지난달 헌혈 200회를 달성했다.

12사단 전차대대에서는 30회 이상 헌혈을 한 장병 9명이 부대 내 헌혈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전차대대는 지난해 헌혈증 103장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22일 헌혈증 218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

육군 5사단 화생방지원대 김중수(42) 상사는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증 70장을 기부했고, 육군 6공병여단 정인성(26) 병장은 서울동부혈액원에 헌혈증 50장을 기부했다.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비상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헌혈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연남뉴스

완도 달스윗, 코로나19 극복 해초두유 6000개 전달



완도 달스윗(대표 조홍주)이 최근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해초두유 6000개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식)에 전달했다. 완도 달스윗은 완도 지역 명물·음료업체로, 기부한 해초두유는 해조류를 재료로 만든 저산 제품이다. 기부물품은 전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서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 위생용품 전달식



광주 서구는 지난 20일 서구청에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한 위생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광주 서구 제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 4월 1일 丙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오래 갈 수 있느냐. 48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60년생 내키지 않으면 굳이 행할 이유가 없다. 72년생 관리와 유지에 철저하지 않다면 후회하게 되리라. 84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96년생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19, 83

丑 37년생 때를 만났으니 한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49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벼들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밀리겠다. 61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3년생 제3의 요소가 생기면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정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97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하라.
행운의 숫자 : 39, 52

寅 38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50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느냐. 62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느냐. 74년생 현재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발전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86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느냐. 98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7, 66

卯 39년생 준칙은 고수하되 융통성을 발휘 하자. 51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63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 한다면 후환을 면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유익하다. 87년생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99년생 내버려둬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5, 54

辰 40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잡아 당겨줘야 한다. 52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64년생 무관심한다면 감퇴할 수밖에 없다. 76년생 인맥의 활용이 충분한 보루가 될 수 있다. 88년생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 될 것이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00년생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차질 없이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3, 59

巳 41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53년생 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65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해야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77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89년생 원래부터 타고난 몫이 다르니 상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01년생 지나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8, 63

午 42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54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66년생 자리 잡게 될 것이다. 78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생 머지않아 회색세로 돌아설 것이다. 02년생 중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3, 86

未 31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43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55년생 귀를 막고 지내야만 마음이 편안 해지리라. 67년생 몇가지가 겹치면서 혼선이 보인다. 79년생 붙잡아 두는 것이 득이 되리라. 91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행운의 숫자 : 32, 88

申 32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44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56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클 것이다. 68년생 지속적이거나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80년생 무리할 필요는 없는 법이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92년생 영원한 비밀이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71

酉 33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45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57년생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69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81년생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정하리라. 93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행운의 숫자 : 24, 99

戌 34년생 학습고대 해오던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니라. 46년생 과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다. 58년생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할지도 모른다. 70년생 복을 불러들이는 전조가 보인다. 82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리라. 94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1, 70

亥 35년생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47년생 돈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느냐. 59년생 파상적인 현상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71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83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량이다. 95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87